

윤곽 드러나는 김흥주 '전방위 로비' 의혹

政·官·檢 힘있는 기관 다 건드려

김흥주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흥주 전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전방위 로비' 의혹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가 외환위기 이후 레저산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을 동원해 로비를 권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김씨의 로비 대상이 동시다발로 겨냥한 검찰의 수사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시도=검찰이 김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과 김씨의 금품거래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2001년 제2금융권에 진출하려 시도하던 과정에서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이던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에게 2억3천만원에 제공하면서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해 청탁한 정황은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 관련 업무 주무 국장이던 김 부원장을 김씨에게 소개해 준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의 행적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가 진척될 경우 이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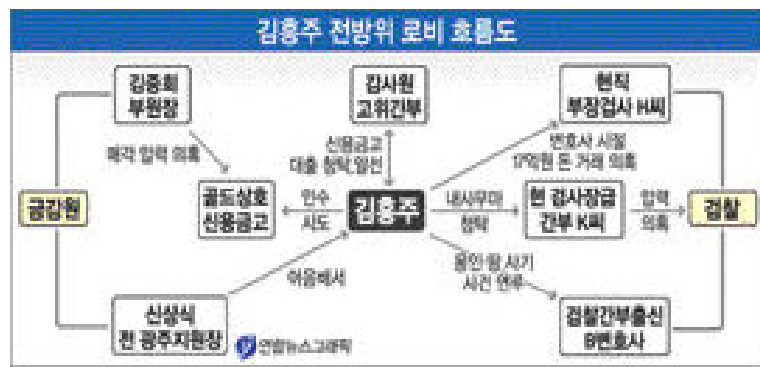
◇대출 일선 로비 의혹=검찰은 김씨가 2002년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이던 신상식씨의 도움으로 수석여원을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씨가 상호신용금고에서 이를 할인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씨가 상호신용금고에서 거액을 대출받도록 신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씨는 코스닥 업체 A사를 약세회 H은행 서울 지점에서 9억원짜리 어음을 발행, 배서해 김씨가 전복 모 상호신용금고에서 이를 할인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씨가 상호신용금고에서 거액을 대출받도록 신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리실 암행감찰 무마 의혹=김흥주씨와 친분이 있던 전직 국제청장 L씨가 2001년 9월 정부합동단속반에 비위 사실이 적발됐으나 김흥주씨의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전 금품 수수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극 개입으로 흐지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다.

당시 국장급이었던 L씨와 과장급 간부가 강남소재 고급 유흥업소에서 업자와 함께 접대성 도박판을 벌였으나 이 내용이 검찰보고서에서 빠졌다는 소문의 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원이었던 신상식씨가 검찰 반 책임자였던 총리실 이사관 N씨에게 전화해 무

마를 시도했을 것이란 소문의 진위도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사 무마 의혹 등=2001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실이 정관계 로비 혐의로 김흥주씨를 내사하다가 중단된 배경에 현직 검사장급 검찰간부 K씨가

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려는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K씨가 당시 내사 담당자이던 P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내용을 알아보는 등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P씨가 퇴직하고 이 사실이 대검에 알려지면서 K씨가 한직으로 좌천되고 수사라인도 바뀌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연합뉴스

대법원장 이번엔 '전별금' 논란

변호사 시절 판사 10여명에 현금 건네...이원장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이 대법원장도 "(조선 부장판사에게)한 푼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8일 보도된 한 일간지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중순에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며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탄로 나니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통보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팀에도 "내 계좌를 까면 대법원장 이름이 나온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이 대법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조관행이 고법부장 승진 때 (변호사) 사무실로 인사를 왔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몇몇 변호사들이 조선 부장판사에게 20만~30만원씩 전달한 것은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대법원장이 금품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도 한 적이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도 "조선 부장판사로부터 이 대법원장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이 없었으며 대법원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벌 중심 성장 탈피 사람중심 공동체 건설"

희망포럼 '2007 희망제안' 발표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과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이 참여하는 희망포럼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제안과 10대 실천 방안을 담은 '2007 희망제안'을 발표했다.

희망포럼은 "한국 경제사회의 재벌 중심의 낡은 성장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데 새해에는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 희망의 공동체를 창조하자"고 제안했다.

희망포럼은 5대 제안에서 ▲사람중심의 발전을 위한 국가발전의 틀 정립 ▲재벌중심·개발중심의 성장 전략 근본적 재검토 ▲사회통합과 혁신을 위한 신뢰사회 구축 ▲중소기업이 경제 도약의 주동력 역할 담당 ▲희망의 새공동체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을 강조했다.

또 10대 실천방안으로 ▲일자리창출, 사람에 대한 투자 늘리도록 정부기능과 조직 개편 및 대선 예비후보의 청사진 제시 ▲부패비리·재벌 내부 부당거래에 대한 법적 강화 ▲하도급 질서를 잡기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일자리창출 ▲희망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한국 주도적 FTA추진 등을 제시했다.

희망포럼은 "한국경제사회의 부동산 거품 붕괴위기로 제 2의 금융위기가 우려된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경쟁력 위기, 일자리 위기, 공교육 붕괴 등 교육위기,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공동체 해체 위기 등 5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단체는 희망제안을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보내 답변을 촉구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與 의원 보좌관 또 연루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게임·상품업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모 의원의 보좌관 K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보좌관에게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게임기 '씨엔조이'의 제조업체인 블루오션코리아의 실소유주 박모씨와 브로커 이모씨를 체포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이 보좌관이 경품용 상품업 업체 대표 박모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았다는 설이 제기됐으나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각각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또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삼미가 상품 개발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금을 맡은 서울보증보험 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넣었는지 밝히기 위해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전남농업, 마케팅이 절반이다



이종태

경제부 차장

세계에서 쌀값이 가장 비싼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이 지난 2005년 중국과 미국 등에 538t의 쌀을 수출했다.

수출가격은 80kg 한가마당 70만~100만원으로, 현지 쌀값의 10~20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부터 수입쌀이 시판되자마자 이제 우리 밥상까지 수입쌀이 잠식해버릴 것이라며 전국이 호들갑 떨던 상황을 떠올리면, 슝스레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일본쌀의 활약을 마냥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 우리 농촌에도 '일본쌀'과 같은 상품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업진흥청이 야심차게 추진한 '타라이스(최고쌀)'만 해도 일본쌀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나주 동강농협과 강진 작년농협이 시범단지로 지정돼 생산, 판매한 타라이스는 수출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마케팅이다. 일본이 쌀을 수출하면서 '맛있는 초밥용 밥을 지으려?' '볶음밥에는 이 쌀이 최고'라는 등 고묘한 마케팅으로 수입대상국 쌀과 차별화를 하고 있는 반면 타라이스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에서조차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지자체는 물론 생산자 단체 등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타라이스의 수출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쌀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타라이스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만평의 논에서 5.5t을 생산, 경기도 성남농협에 전량 판매해 1억여원의 고소득을 올린 장흥군 쇠뿔구리 작목회의 '저토미'나 셀레늄 함유량이 높다는 '녹토미'도 해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경년기 장애 등에 효능이 뛰어난 '가바(Gaba)' 성분이 강화된 나주 가바라이스영농조합의 '말아현미', 독특한 재배방식을 통해 생산해낸 관상용 호박,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된 육색 고구마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농산물이 적지 않다.

이제 농촌·농업도 개방시대를 맞아 좌절할 수만은 없다. 농산물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며, 그러자면 공산품처럼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이 동반돼야 한다.

나아가 제조업체가 해외시장개척을 하듯이, 농산물 생산자단체도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개방시대의 위기를 털어버릴 수 있다.

/jtle@kwangju.co.kr

광주일보사 3.1절 전국마라톤대회. A large promotional poster for the 42nd Kwangju Ilbo 3.1 National Marathon. It features a large crowd of runners, a map of the course, and details about the event including date (March 1st), start time (9:00 AM), and registration information. The poster is colorful and includes the Kwangju Ilbo logo and contact information.